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6 No. 2, June 2023, pp.12~26.*
Copyright©202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3.56.2.12

〈신자료〉『경자년(庚子年) 대통력(大統曆)』에 관한 고증 연구
– 비망 기록을 중심으로 –

노승석 동국대학교 여해(汝諧)연구소 학술위원장

skku1001@naver.com

국 문 초 록

최근 조선 선조 때 유성룡의『경자년 대통력』(1600)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되었고, 이 책의 여백에 초서로 작성된 비망기록 4천여 자를 노승석이 해독하였다. 이는 203일 간의 대부분 새로운 내용들로서 그 당시 유성룡의 생활과 교유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각 날짜별 날씨와 하루 일과, 당시 인물, 질병과 한약 처방 등이 적혀 있다. 특히 표지에 적힌 83자의 이순신의 전사 기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순신이 전사한 후 1년여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전사내용을 적은 것은 선조의 전교를 받아 이순신의 공적을 현창하려는 조정의 여론에 부응하여 그의 전공을 오랫동안 되새기기 위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록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순신이 고금도에서 유성룡의 파직 소식을 듣고 탄식하고 왜교성전투 이후 항상 배안에서 맑은 물을 떠놓고 다짐한 것. 둘째, 노량해전에서 부장들이 간언하여 만류함에도 끝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나가 전쟁을 독려하다가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한 것이다. 이는 오직 결사적인 각오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의미로 작성되어 전사설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외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술을 만드는 법 9건과 기타 방법 1건이 있는데, 당시 유행한 양주법과 새롭게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동의보감』저자인 허준이 유성룡에게 약품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외 빈민을 구제하고 집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주서(朱書)로 표기하였다. 일본에 잡혀간 강항(姜沆)의 귀환 소식과 귀갑선도(龜甲船圖)를 선조에게 올린 이덕홍(李德弘)의 아들 내용도 있다.

요컨대『경자년 대통력』은 현존하는 문헌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다수 담고 있어서 유성룡과 관계된 인물 연구는 물론, 그 당시 시대상황을 실증적으로 고증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순신의 전사기록을 통해 항간에 잘못 알려진 자살설을 바로 잡고, 허준이 유성룡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힌 점은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조선 선조 때의 유성룡과 관계된 역사와 인물을 연구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유성룡, 경자년대통력, 비망기록, 이순신전사기록, 허준

투고일자 2022. 12. 16. | **심사일자** 2023. 1. 13. | **게재확정일자** 2023. 5. 19.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Ⅰ. 서론

최근 임진왜란 이후 1600년(경자)에 유성룡이 비망기록을 적은 『경자년(庚子年) 대통력(大統曆)』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되어 2022년 11월 24일 문화재청에서 이 책과 해독 내용을 공개하였다.[1] 『대통력』은 명나라 때의 역서로서 본래 1367년 태사원사(太史院使) 유기(劉基)가 만든 『무신대통력(戊申大統曆)』에서 비롯하였고, 1384년 누각박사(漏刻博士) 원통(元統)이 만든 『대통력법통궤(大統曆法通軌)』가 널리 통용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74년에 『대통력』이 전해지고 조선 태조 때인 1398년에 『대통력』 1부가 들어왔으며, 1405년에 『대통력일(大統曆日)』 101부가 반포되었다. 그 후 세종때인 1432년 정인지 · 정흠지 · 정초에 의해 역법이 독자적으로 연구되고, 1433년 『칠청산내 · 외편』을 만들게 하였다. 1444년에 『칠정산내 · 외편』을 편찬하고, 그 후 수정보완판으로 간행된 역서 『대통력주』 여러 종[2]이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대통력』은 고려 때 전래된 이후 효종 때인 1653년 시헌력(時憲曆)을 사용할 때까지 약 3백년간 사용되었다.

조선은 이러한 과정에서 편찬된 역서들을 간행하여 배포하였고, 이러한 종류의 역서들이 마침내 유성룡의 집안에도 전해지게 되었다. 이번에 환수된 『경자년 대통력』은 1599년 조선의 예조 관상감(觀象監)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고, 유성룡이 책력의 날짜 여백에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비망 형태로 적은 것이다. 현재 안동 풍산유씨 충효당에 소장된 유성룡의 비망기 입본 『대통력』 6책[3]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경자년 대통력』은 현존하는 8종의 『대통력』과 비교해볼 때, 비망기록의 서체가 서로 일치하고 내용에 나오는 인물이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로 확인되므로, 유성룡의 장서로 판단되고 있다. 이 책의 여백에 적힌 203일 간의 내용은 대부분 새로운 내용들로서 그 당시 유성룡의 생활과 교유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날짜별 기록에는 날씨와 하루 일과, 유성룡과 관계된 인물들이 왕래한 내용, 질병의 증상과 한약 처방 등이 적혀 있다. 특히 가철(假綴)된 표지에 적힌 83자의 이순신의 전사 기록은 그 당시의 전사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현재 『경자년 대통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표지에 대한 번역[4]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원문상의 차이가 일부 발견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자년 대통력』의 비망기록을 위주로 고증 연구하되, 우선 『대통력』의 유래와 서지사항을 살펴보고, 특히 표지에 적힌 83자의 문장을 단락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해 관련된 문헌으로 내용을 고증하고자 한다. 그 외 기록으로 전통적인 기법으로 술을 제조하는 방법과 허준이 유성룡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한 사실, 새로 밝혀진 내용들과 함께 『경자년 대통력』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사료적인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2022년 6월 29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노승석에게 유성룡의 비망기록본 『경자년 대통력』에 대한 해독을 의뢰하여 2개월여 만에 완성하였고, 동년 9월에 일본에서 환수되어 11월 24일 문화재청(최응천 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원본과 해독문을 발표하였다.

2 명나라 『대통력』을 조선에서 수정 간행한 역서 『대통력』 몇 종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① 『대통력주(大統曆註)』, 편자 · 간자 미상. 권말(세종 16년(1434) ②『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 李純之 · 金淡 受命校正, 세종연간(1418–1450)

3 기존의 보물로 지정된 『대통력』은 갑오 · 병신 · 정유 · 갑진 · 병오 · 정미본 6책이고, 그 외 비지정된 『대통력』은 을사 · 무술본 2책이 있다. 문화재명칭은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이다.

4 2001년 서애선생기념사업회에서 기존의 『서애집』에 빠진 내용을 별도로 모아 『서애전서』 『잡저』 (이재호 국역)를 간행했다. 이 책의 무제(無題) 별기(別記)에 표지와 유사한 해독문이 있고, 2021년 류을하의 「임진왜란기간 류성룡 · 이순신 관계와 정유년 위기의 극복」논문에 같은 해독문이 소개되었다. 이 별기는 표지의 원문과 비교하면 4곳의 글자 차이가 있고, 표지의 새로운 내용인 '왈대장불의자경(曰大將不宜自輕)'과 '친출독전(親出督戰)' 두 구절이 없다. 별기는 표지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나 유성룡이 또 다른 형태로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Ⅱ. 『경자년 대통력』의 서지(書誌) 사항

1. 『대통력』의 유래

『대통력』은 명나라의 역서로서 태사원사(太史院使) 유기(劉基)의 『무신대통력(戊申大統曆)』과 누각박사(漏刻博士) 원통(元統)의 『대통력법통궤(大統曆法通軌)』를 들 수 있다. 『무신대통력』은 136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원나라 세조가 1281년 수정하여 반포한 『수시력(授時曆)』이 명(明)나라 개국과 함께 『대통력』으로 바뀌고, 1367년 유기가 『수시력』을 보완하여 만든 『무신대통력』을 1368년 11월 동지에 명 태조에게 바친 데서 비롯하였다. 태조는 역법의 이치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고 경천근민(敬天勤民)의 뜻이 있다고 말하였다.[5]

이 『무신대통력』은 '원나라 지원(至元) 18년(1281, 신사)'을 기산점으로 삼고 1년을 365.2425일로 고정하고 내용에서는 수시력을 그대로 답습하였다.[6] 1370년 습업자를 관리로 임명하는 데 대통력을 고과하는 4과목 중의 한 과목으로 삼았고, 길흉의 점을 다루고 설호(挈壺, 물시계 담당 관리)가 호(壺)를 누부(漏浮)로 삼고 전(箭)을 각(刻)으로 삼아서 별의 위치와 밤낮의 도수를 헤아리어 감정승(監正丞)에서 통일하게 하였다.[7] 1378년에 흠천감(欽天監)에서 명년의 『대통력』을 올리니 태조가 봉천전(奉天殿)에 나아가 여러 왕과 백관들에게 반포하였다.[8]

『대통력법통궤』는 1384년 원통이 만든 역법서로서 『수시력』을 취하여 세실(歲實, 1회귀년) 소장(消長)의 설을 없애고 4권(『태양통궤(太陽通軌)』·『태음통궤(太陰通軌)』·『교식통궤(交食通軌)』·『오성사여통궤(五星四餘通軌)』)으로 편집하여 '홍무 17년(1384, 갑자)'을 역원으로 삼아 『대통력법통궤』로 명명한 것이다.[9] 1년을 365.2425일로 고정하되 100년마다 1만분의 1씩을 줄이는 소장법(消長法)을 수시력에서 제외하고, 역원을 고치고 수시력의 월식 시차(時差)와 계산식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공민왕 때 1374년(갑인) 성준득(成准得)에 의해 유입되었는데, 1370년(경술) 5월 26일 명나라 황제가 상보사승(尙寶司丞) 설사(偰斯)를 보내어 금인을 내려 공민왕을 정식으로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고 유기가 만든 역서 『대통력』 1권을 하사했으며, 1374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성준득이 귀국할 때 『대통력』(홍무3년)을 하사받았다[10]는 내용이 있다. 1393년에는 중국 조정에서 매년 10월 1일 역서를 반포하는 의식이 법률로 제정되었고,[11] 명나라에서 조선 태조 때인 1398년에 건문 원년의 『대통력』 1부가 들어왔으며,[12] 태종 때인 1405년 명나라에서 자문을 보낼 때 『대통력일(大統曆日)』 100부와 황색 비단으로 표지를

5 임요유(林堯俞)(명(明)), 「상정대통력(詳定大統曆)」, 『예부지고(禮部志稿)』 권88, 제43, "吳元年十月乙未 是日太史院進戊申歲大統曆 … 上召御史中丞兼太史院使劉基 謂曰如古者 以季冬頒来歲之曆 似爲太遲 今于冬至 亦爲未宜 明年以后 皆以十月朔進 初戊申曆成將入梓 基與其屬高翼 以所錄本進 上覽之謂基曰 此衆人之爲乎 基曰是臣二人詳定 上曰曆數者 國之大事 帝王敬天勤民之本也".

6 이은성, 1985,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pp.328~329.

7 곡응태(谷應泰), 「수명역법(修明曆法)」,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 권73, 제1, "官其習業者, 分四科, 曰天文, 曰漏刻, 曰大統曆, 曰回回曆 … 吉凶之占 挈壺正知漏孔, 壺爲漏浮, 箭爲刻, 以考中星昏明之度而統于監正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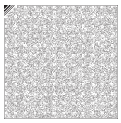
8 「역법총부회고(曆法總部匯考)」, 『역법전(曆法典)』, 제41권, "按大政紀, 洪武十一年九月庚午朔 欽天監進明年大統曆 上御奉天殿 頒曆于諸王百官".

9 장정옥(張廷玉), 1991, 「지(志)7 · 역(曆)1」, 『명사(明史)』, 중화서국, "統乃取授時曆 去其歲實消長之說 析其条例 得四卷 以洪武十七年甲子爲曆元 命曰 大統曆法通軌".

10 1990, 『고려사』 42권, 「공민왕세가」, 서울아세아문화사, "甲辰 洪武三年五月二十六日 尙寶寺丞偰斯至 欽奉詔書封臣爲高麗國王 鑄降金印一顆儀制服用許從本俗 仍賜大統曆一道錦繡綵段 … 甲寅 帝遣尙寶司丞偰斯 來錫王命 王率百官郊迎 誥曰 咨爾高麗國王王顓世守朝鮮 … 今賜大統曆一本錦綉綵段十匹至可領也 成准得還自京師".

11 『大明會典』, 103권, 「曆日」. "每歲二月朔 欽天監奏進明年曆式 預行各布政司刊布 例以九月朔進呈頒賜 嘉靖十九年 改用十月朔 洪武二十六年定進頒曆日儀".

12 『태조실록』 1398년 12월 22일, "今上皇帝, 奉遺詔卽位, 以明年爲建文元年, 已經布告天下. 今照海外朝貢諸國, 理合通行, 今發去建文元年大統曆一本".



싼 것 1부를 반포하였다.[13] 그러나 이 수효로는 보급이 어려워 조선에서 자체 제작을 위해 세종 때인 1432년 정인지 · 정흠지 · 정초에 의해 역법이 연구되었다.[14]

이에 비해『대통력법통궤』는 이순지가 쓴『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軌)』발문(跋文)의 갑자년(1444) 연도와『칠청산내편』의 간행 시기가 달라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갑자년에 모두 교정을 마쳐『칠정산내 · 외편』을 편찬한 것은 분명하다.[15]『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軌)』의 발문에, '근년에 중국에서 통궤법을 얻고 임술년(1442) 이순지(李純之)와 김담(金淡)에게 명하여 수시력과 통궤법에 의거하여 비교하고 정밀한 내용을 취하여 한 책을 만들게 하였다'는 내용을 근거하면,『대통력법통궤』가 세종 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수시역경』·『역일통궤』·『태양통궤』·『태음통궤』·『교식통궤』·『오성통궤』·『사여전도통궤』등의 역법서들을 교정하였다. 그 후 1433년 명나라의『대통력통궤』에 교정을 가하여『칠청산내편』을 만들게 하고『회회력법』을 얻어 이순지(李純之)와 김담(金淡)에게 그것을 교정하여『칠청산외편』을 만들게 하였다.[16] 특히 칠정산내편의 내용은 수시력과 6편의 통궤본을 바탕으로 편찬된 것이므로『대통력법통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조선에서 수정보완판으로 역서『대통력주(大統曆註)』여러 종이 간행되었는데,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유기의 역서를 개정한 원통의 판본을 조선의 관상감에서 1442년(세종 24)에 간행한 것이다.[17] 이후 이러한 과정에서 편찬된 역법서들을 조선에서 간행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조선의 역서들이 유성룡의 집안에 전해지게 되었다.

2.『경자년 대통력』

조선 초부터 1598년까지 간행된 역서들의 특징은 명나라의 국호와 연호가 적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조선이 공식적으로 명나라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간행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인 1599년부터 조선의 역서는 명나라의 국호와 연호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유성룡의 갑진년 역서(1604)와 정미년(1607) 역서를 들 수 있다. 1598년 12월 명나라 사신 정응태의 무고사건과 조선의 독자적인 역서 간행이 문제가 되어 바꾼 것이다.[18]

현존하는 유성룡의 수택본『대통력』은 조선 예조의 관상감(觀象監)에서 간행한 책력으로,[19] 문벌 가문 중에 가장 오래되어 귀중본으로 분류된다.[20] 현재 안동 하회 충효당에『대통력』8책[21]이 소장되어 있다. 갑오 · 병신 · 정유 · 무술본에는 임진왜란 중에 발생한 주요 사건과 유성룡이 이순신의 휘하들을 만난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정유재란 시기에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직에서 파직된 내용[22]과 노량해전 이후 이순신의 죽음을 애도한

13『태종실록』, 1405년, 3월 17일, " 欽此 除欽遵外 擬合移咨 欽遵施行 一件 曆日事 今頒永樂三年大統曆日一百本內 黃綾面一本".

14「칠정산내편서」,『칠정산내편 상권』, 한국고전번역원.

15 이은희 · 한영호 · 강민정, 2018,「아랍에서 조선까지 이슬람역법의 전래와 수용」,『한국과학사학회지』, 한국과학사학회, pp.36~37.

16 성주덕 편저 · 이면우 등 역주, 2003,『서운관지』, 소명출판사, pp.94~95.

1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대통력주』(奎2426) 해제 참고.

18 박권수, 2013,「조선의 역서간행과 로컬사이언스」,『한국과학사학회지』한국과학사학회, pp.82~86.

19 유성룡,『경자년 대통력』, 국립고궁박물관, p.34. "通訓大夫觀象監正臣 金乾長, 副正臣 南應年, 僉正臣 鄭思仁, 通訓大夫行天文學敎授臣 李希誠, 通德郎行觀象監判官臣 崔逸".

20 정성희, 2007,「조선시대 양반가문 소장 역서류의 현황과 가치」,『사학연구86호』, 한국사학회, p.110.

21『대통력 · 갑오』(1594),『대통력 · 병신』(1596),『대통력 · 정유』(1597),『대통력 · 무술』(1598),『대통력 · 갑진』(1604),『대통력 · 을사』(1605),『대통력 · 병오』(1606),『대통력 · 정미』(1607).

22 노승석 해독,『대통력 · 정유』2월 1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統制使李舜臣被逮, 使元均代爲統制".

시[23]가 있어 이순신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2022년 11월 유성룡의 『경자년 대통력』[24](1600)(38×20㎝)이 발굴되어 문화재청에서 원본을 처음 소개했는데, 이는 국내에 없는 역서로 경자년 한 해의 각 날짜별 간지와 별자리, 운기에 맞는 일 등을 인쇄한 내용 이외에 여기에 적힌 약 4천여 자는 초서로 작성된 비망기록이다. 표지와 비망기록을 보면, 현존하는 유성룡과 관계된 국내 사료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이순신 및 유성룡과 관계된 인물 연구는 물론, 그 당시 시대상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이 유물은 일본 교토대학의 김문경 명예교수의 제보로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수차례의 조사와 심의의 과정을 거친 후 지난 9월 국내로 들여오게 된 것이다.

표 1 『경자년 대통력』 비망기록 날짜 표

제목(월)	『경자년 대통력』 비망기록 날짜	쪽수
표지	표지, 이순신의 전사 내용	1, 2
별기	急酒方, 甘酒, 香醪	3
별기	粘酒, 桃仁酒, 栢子酒, 造酒法, 醒酒方, 治惡酒方, 黍淸法	4, 5, 6
1월	1~7, 9~11, 15, 16, 18, 19, 21~23, 25, 27, 28	7, 8
2월	1, 8, 10, 12, 15~17, 20~25	9, 10
3월	2~9, 11~16, 18, 19, 22~27	11, 12
4월	1~3, 5, 13, 16~26, 28~29	13, 14
5월	2, 4~11, 18~28	15, 16
6월	1, 3~7, 9, 10, 11, 18~20, 25~27, 29, 30	17, 18
7월	1, 3~13, 18~20, 22, 23	19, 20
8월	5~7, 9~12, 14, 15, 18, 23, 25~30	21, 22
9월	9~10, 12~15, 25~27, 30	23, 24
10월	1, 2, 5~11, 13, 15, 16, 19, 20, 27	25, 26
11월	1, 3~7, 11, 12, 16, 17, 20, 22, 23	27, 28
12월	1~3, 13~30	29

이 『경자년 대통력』은 1599년 금속활자로 간행되었고, 이 책의 여백에 적힌 비망기록은 1년 12개월 중 203일치의 기록이다. 여기에 유성룡의 이름과 호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비망기록의 문체와 서체가 현존하는 8종의 『대통력』과 일치하므로 유성룡의 기록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날짜의 여백에 날씨와 하루 일과, 유성룡과 관계된 여러 인물이 왕래한 내용, 병증과 한약 처방이 적혀 있다. 간혹 변형된 유성룡만의 서체가 보이고,[25] 특기할 내용은 주서(朱書)로 적었다. 월별 주요 기사는 『서애집』, 『서애선생연보』 내용과 일치하고, 유성룡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다수 적혀 있다.

표 2 『경자년 대통력』 비망기록 주요 내용 표

월	『경자년 대통력』 비망기록 주요 내용
1	조인수(曺仁壽) 등이 방문. 배로 옥연에 가서 보허대(步虛臺)에 소나무를 심고 저녁에 돌아옴. 노경임(盧景任)이 방문
2	북쪽 정원에 소나무를 심음. 시제를 행하고 가묘에 참배함. 전수(全守)가 보낸 조보를 받음. 금계에 가서 성묘하고 석물을 수리함
3	북쪽 정원에 국화를 심었다. 가묘에 참배. 모친을 모시고 옥연에 가서 꽃 구경함. 모친의 체후가 안정됨. 퇴계연보의 초안을 잡음
4	정경임(鄭景任)이 찾아와서 서당에서 잠. 재자의 실기와 이학록 받음. 연보 편찬 마침. 옥연 집을 방문. 조창조(糶倉租) 6섬으로 빈민 구제함
5	옥연에 가서 보허대(步虛臺)에 대나무를 심음. 연보를 수정함. 보리를 수확함. 김사열이 와서 연보의 일을 말함. 내윤(萊尹)이 법첩을 보내줌
6	강항(姜沆)의 귀국 소식. 박우춘(朴遇春)의 편지, 허준(許浚)이 약품과 당선(唐扇)을 소개함. 옥연에 갔다옴. 불에 탄 초당을 수리함
7	가묘 참배함. 중전이 승하하여 옥연에서 서쪽을 향해 거애(擧哀)함. 겸암(謙岩)의 집에 가서 곡하고 변복함. 지당리(之堂里)에서 벌목함
8	감사의 편지가 옴. 유란(有蘭) · 근수(謹守) 옴. 금계 · 병산을 갔다가 어락정에 앉음. 보허대를 증축하고 달관(達觀)으로 개명함. 겸암에 갔다 옴
9	창이(昌伊)와 근수(謹守), 유란(有蘭)이 돌아감. 이강(李茳)과 이점(李蔵)을 만남. 김생 원진(遠振)이 곶감과 생시를 보냄
10	권첨지(權僉知)와 종윤(終允), 좌수 이종(李從), 이정남(李挺南) 등을 만남. 옥연에서 홍우(洪祐) 등을 만남. 존(袴) · 진(袗)이 금계로 감
11	직첩이 내려짐. 찰방 강영(姜瀅), 권빙(權憑), 군수 이유함 등을 만남. 밤중 지진이 남. 근수가 주부가 도주한 노비를 붙잡은 소식을 전함
12	서행하여 용궁에서 자고, 이우(李瑀)와 언룡(彦龍)을 만남. 영두(嶺頭), 안부(安富), 누암, 여주, 용진, 여읍, 전농, 진위, 진천, 괴산, 조소령을 거쳐 옥연 도착, 집에 돌아와 참배함

Ⅲ. 『경자년 대통력』 비망기록의 연구

1. 표지에 적힌 이순신의 전사기록

23 노승석 해독, 『대통력 · 무술』, 한국학중앙연구원, p.10 여백, "閑山島在何處 大海之中一點碧 古今島在何處 渺渺南溟橫一髮 當時百戰李將軍 隻手扶將天半壁 鯨鯢戮盡血殷波 烈火燒竭馮夷窟 功高不免讒妬構 力戰不憚身循國 君不見峴山東頭一片石 羊公去後人垂泣 猶在一間屋 時有蜑戶來奠酒".

24 경자년 대통력의 원제목은 "大明萬曆二十八年歲次庚子大統曆"인데, 여기서는 편리상 『경자년 대통력』으로 칭하였다.

25 유성룡이 변형하여 쓴 글자로 예를 들면, 8월 5일자에 난초란(蘭)의 '풀초변(艹)'을 '이(二)'자형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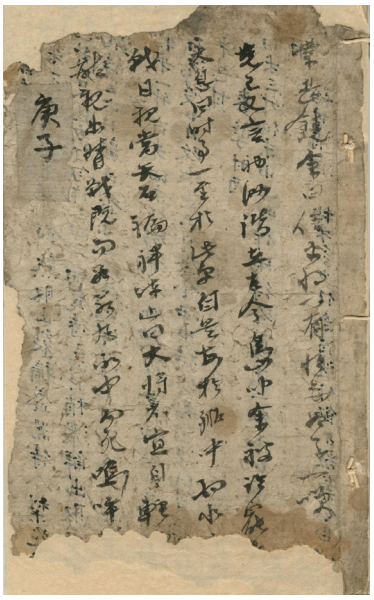


그림 1 『경자년 대통력』 표지 사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원문〉

( ): 추정자, □: 훼손자

…

(家)業甚饒 余曰 (信乎)將(門) 有(將妻)[26] 爲之一笑 □(鄭)克己又言[27] 初[28]汝諧 在古今島 聞余被論罷□…(去 失聲)太息曰 時事一至於此乎 自是每於船中 酌水□…(禱死)戰日[29] 親當矢石 褊裨諫[30]止曰 大將不宜自輕 □…(汝諧不)聽 親出督戰 旣而爲飛[31]丸所中而死 嗚呼□…(悲夫)

〈번역문〉

… 가업이 매우 넉넉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진실로 장수의 가문에 장수의 아내가 있도다.)" 라고 하여 이 때문에 한바탕 웃었다. (정) … 극기(克己)[32]가 또 말하기를, "당초 여해(汝諧)[33]가 고금도(古今島)에 있을 때[34] 내가 논핵을 받아 파직된 것을 듣고[35] (목놓아) 크게 탄식하기를 '시국일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가'라고 하였다.[36] 이로부터 매번 배안에 있을 때는 맑은 물을 떠놓고 (다짐하였다)[37] … 전쟁하는 날에 직접 시석(矢石)을 무릅쓰자, 부장(副將)들이 간언하여 만류하기를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그러나 여해는 듣지 않고) 직접 출전하여 전쟁을 독려하다가 이윽고 날아온 탄

26 위 표지와 내용이 유사한 별기의 초고가 본래 류성룡의 종가에 있었으나 현재는 소재 확인이 안 되어 초고 글씨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2001년 간행된 『서애전서』「잡저」국역본(앞의책) 별기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이 표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참고하여 표지의 훼손된 글자를 수정, 또는 추정자로 기입하였다. 위의 "(信乎)將(門) 有(將妻)"부분은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한 상태인데, 처음에 "(倭等)將(行) 有(恒頓)"으로 추정했다가 후에 별기를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27 우언(又言)이 『잡저』에는 "우(又)자가 없고 "언(言)"자만 있다.

28 초(初)자가 『잡저』에는 "리(李)"자로 다르게 되어 있다.

29 전일(戰日)이 『잡저』에는 "당(當)자가 추가되어 "당전일(當戰日)"로 되어 있다.

30 『잡저』에는 "간(諫)"자로 되어 있다. 이 글자의 자형이 진(陣)자와 유사하나 간(諫)자의 의미가 잘 통하므로 이를 따라 수정하였다.

31 비(飛)자가 『잡저』 별기에는 "유(流)"자로 다르게 되어 있다.

32 극기(克己)는 정호인(鄭好仁)의 자(字). 정호인 절도사 정원상(鄭元祥)의 아들로 유중영(柳仲郢 1515~1573)의 세째 사위이고 유성룡의 매제이다. 안음현감을 지내고 청렴하다는 명성이 있었다.『서애집』, 「별집」.

33 여해(汝諧)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자(字)이다.

34 무술년 2월 17일에 이순신이 보화도에서 강진(康津) 경내의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기고(『선조실록』 1598. 3. 18. 「통제사 이순신 서장(書狀)」), 11월 노량해전 때까지 여기에 주둔하여 명나라와 작전을 하였다.

35 양호(楊鎬)의 울산 패전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명나라 찬획주사(贊畫主事) 정응태(丁應泰)는 조선이 양호와 합작하여 은폐하고 왜적과 통모했다고 무고했다. 유성룡이 이를 해명하려했으나 선조가 정사를 보지 않았고 평소 불신했던 이이첨이 계를 올려 유성룡이 자청하여 가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다(9. 24). 그 후 승문원 정자 유숙(柳潚)이 다시 투소(投疏)하고, 유생 홍봉선과 이호신이 유성룡을 무고하자, 수차례 사직을 청한 끝에 10월 9일 영의정에서 체직되었다(『서애집』, 「서애선생연보」 2권, 무술 9~10월).

36 유성룡, 『서애집』, 「서애선생연보」 2권, 무술 10월 22일, 한국고전번역원, "李統制舜臣在古今島 聞先生被論 失聲太息曰 時事一至此".

37 작수(酌水)는 맑은 물을 떠놓고 청렴을 다짐한다는 의미인데, 『수서(隋書) · 순이전론(循吏傳論)』에 "조궤(趙軌)가 임기가 만료되자 맑은 물을 떠놓고 전별하니 청렴하도다(趙軌秩滿, 酌水餞離, 淸矣)"라고 한 내용이 있다. 여기서는 이순신이 유성룡의 파직된 것을 듣고 스스로 경계하며 다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환을 맞고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아아! (슬프다)[38]

가철(假綴) 된 위 표지의 '경자(庚子)' 간지 우측 여백에는 5행의 문장이 초서(草書)로 적혀 있는데 모두 83자이다. 초서 해독의 관건은 문맥이고 이에 따라 문팔초이(文八草二)의 원리를 적용해야 정확히 해독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지는 심하게 흘린 데다 일부 글자가 훼손 되고 문맥이 끊겨 있어서 해독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다행히 『서애전서』, 『잡저』의 별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표지 앞의 잘린 부분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순신의 사위인 홍비(洪棐)에 대해 부인 상주 방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려는 것을 친척의 권유로 간신히 혼례를 치렀고, 조카들은 숙모가 엄하여 감히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정극기가 말하자, 유성룡은 "진실로 장수의 집안에는 장수의 아내가 있도다"라고 하여 이 일 때문에 한바탕 웃었다는 내용이다.[39]

이 내용을 통해 유성룡이 매제인 정극기(鄭克己)를 통해 이순신의 부인과 사위 홍비에 대한 이야기와 이순신의 전사 사실을 전해들은 것을 별도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정극기가 두 번 언급했기 때문에 위 표지에는 "또 우(又)"자를 써서 "극기우언(克己又言)"으로 되어 있는데, 『잡저』에는 우(又)자가 없다. 이순신이 1598년 2월 고금도에 진을 옮긴 이후부터 11월 노량해전 때 전사하기까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 이순신이 전사한 후 1년 몇 개월 뒤에 유성룡이 『경자년 대통력』 표지에 왜 이순신의 전사 상황을 기록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다만, 1599년에 이순신에 대한 포상과 현창 및 사당건립에 대한 건의가 선조에게 보고되는 내용이 『선조실록』에서 확인된다. 즉, 1599년 1월 9일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가 선조를 만나서, "이순신이 혈전을 벌이다가 죽었는데, 탄복할 만합니다. 그의 자손을 포상하여 그 충렬을 표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40]라고 하였고, 동년 2월 8일 형조정랑 윤양(尹暘)이 선조에게 "노량의 전공은 모두 이순신이 힘써 싸워 이룬 것으로써 불행히 탄환을 맞았습니다."[41]라고 하였다, 동년 4월 14일 홍문관이 이순신의 사당 건립을 선조에게 건의하자, 선조가 전례대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전교하였다.[42] 1600년 1월 29일 선조는 "이순신의 사당을 세우는 일을 이미 의논하였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가? 민간에서 세운 사당은 있지만 국가가 명하여 세운 것은 없으니, 이 일에 대해 듣고 본 것을 헤아려서 시행하라."[43]고 하였다. 이처럼 선조의 명을 받아 이순신의 공적을 현창하려는 조정의 여론에 부응하여 유성룡도 이순신의 전사 상황을 그 표지에 적어두고 경자년 1년 내내 보면서 그의 전공을 되새기며 거울로 삼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표지 하단의 글자들은 몇 자씩 잘려 있는데, 그러함에도 문맥을 고려하여 난해한 글자 및 본문에 없는 글자를 추정하는 고난이도의 해독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이른 바 문맥 교감(文脈校勘)으로, 비교하여 고찰할 글이 없는 상황에서 글의 정오(正誤)를 분석하

38 노승석 해독, 2022, 『경자년 대통력』표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자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39 이재호, 2001, 『잡저』, 『국역 서애전서』 II-1, 서애선생기념사업회, pp.499~500.

40 『선조실록』, 1599년 1월 9일, 한국고전번역원. "上幸江上 迎慰麻提督 … 李舜臣血戰死之 俺雖不見其面目 爲之歎服 賞其子孫 以旌其忠可也".

41 『선조실록』, 1599년 2월 8일, 한국고전번역원, "刑曹正郎尹暘啓曰 … 露梁戰功 都是李舜臣力戰所致 不幸逢丸".

42 『선조실록』, 1599년 4월 19일, 한국고전번역원, "弘文館啓曰 李舜臣立祠事 自官自民前代事 考出事傳敎矣 … 傳曰 前例更察考啓".

43 『선조실록』, 1600년 1월 29일, 한국고전번역원, "李舜臣立祠事 曾已議之 今不爲乎? 見輿地圖 則我國立祠者 外方多有之 … 民間私自立祠則有之 自國家命立 則無之 此事聞見量爲".

고 고증하는 일종의 교감방법이다.[44] 후에 별기의 해독문을 참고했지만, 본래 누락된 글자를 '불(不)'자로 추정하거나 끊긴 문맥에 맞는 해독을 진행하였다.

위 표지 내용은 주요 사건별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락별 번역문과 해설〉

1) … 가업이 매우 넉넉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진실로 장수의 가문에 장수의 아내가 있도다.)"라고 하여 이 때문에 한바탕 웃었다. … (정)(… (家)業甚饒 余曰 (信乎)將(門)有(將妻) 爲之一笑 □…(鄭))

▶ 위 문장은 글자가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한 상태이다. 다만『잡저』별기의 해독문을 참고하여 일부 글자를 추정하였고 추후 가장본 초고를 확인한 뒤 재검토하고자 한다. 끝의 정(鄭)자는 다음 단락에 극기(克己) 이름이 나오므로 추정하여 기입하였다.

2) 극기(克己)가 또 말하기를, 당초 여해(汝諧)가 고금도(古今島)에 있을 때 내가 논핵을 받아 파직된 것을 듣고, (목 놓아) 크게 탄식하기를 "시국 일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매번 배안에 있을 때는 맑은 물을 떠놓고 … (다짐하였다).(克己又言 初汝諧 在古今島 聞余被論罷□…(去 失聲) 太息曰 時事一至於此乎 自是每於船中 酌水□…(禱死 當))

▶ 1598년 2월부터 이순신은 고금도의 통제영에 주둔하였다.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명군과 함께 왜교성 전투를 치렀지만, 유정이 이끄는 명나라 육군의 소극적인 협조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부대를 섬멸하는데 실패하였다. 명의 육군이 철수했지만 진린과 이순신은 왜교의 바다에서 날마다 해상작전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왜적이 감히 나오지 못하였고, 유키나가의 구원병을 대파하였다"[45] 이때 이순신은 유성룡이 파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나라 찬획주사 정응태(丁應泰)의 무고 사건으로 이이첨의 계(啓)와 유생 홍봉선의 무고로 유성룡이 수차례 사직을 청한 끝에 영의정에서 체직되었다(각주 35번 참고). 이 날의『서애집연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순신은 배 안에 있을 때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청렴을 다짐하며 남다른 각오를 하였다.『잡저』에는 이 끝구에 '죽기를 맹세하다[서사: 誓死]'는 말이 있는데, 이 책의 표지에는 없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초고를 확인한 후에 재분석하고자 한다.

3) "전쟁하는 날에 직접 시석(矢石)을 무릅쓰자, 부장(副將)들이 간언하여 만류하기를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해는 듣지 않고) 직접 출전하여 전쟁을 독려하다가 이윽고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아아! (슬프다)(戰日 親當矢石 褊裨諫止曰 大將不宜自輕 □…(汝諧不)[聽] 親出督戰 旣而爲飛丸所中而死 嗚呼 □…(悲夫))

▶ 11월 19일 자정에 조명군이 몰래 출발했는데, 동쪽에 있는 왜군들은 이미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고 관음포에서 대기하였다.[46] 이때 진린이 계금(季金)과 함께 출동하고 이순신이 앞장서서 전양으로 나갔다.[47] 그 후 새벽 2시경부터 아침까지 노량에서 일본선 5백여

44 倪其心, 1987,「校勘的一般方法和考證的科學根據」,『校勘學大綱』, 北京大學出版社, p.105.
"本書又沒有提供比勘文辭的情況下, 一種分析考證文辭正誤的校勘方法".

45 김종권, 1987,『신완역 징비록』, 명문당, p.226. "統制使李舜臣 以舟師大破其救兵於海中".

46 안방준,「노량기사」,『은봉전서』 권7, 한국고전번역원, "俱蓐食潛發 則東賊已至於閒山前洋 觀音浦整齊鳥銃 待我將發".

47 신경,『재조번방지』 5, 무술 11월 19일, 한국고전번역원, "都督與季金先行 諸營繼之 舜臣先導 出屯前洋".

척과 큰 격전을 벌였는데, 조명군이 좌우에서 장작불[시화: 柴火]을 던져 일본선이 연소되었다. 왜군이 관음포 항구로 후퇴하자, 날은 이미 샜고 궁지에 몰린 왜군과 조명군이 육박전을 벌였다.[48]

이때 이순신은 직접 북채를 잡고 먼저 올라가 왜군을 추격하며 죽이다가 적의 포병들이 배꼬리에 엎드린 채 일제히 쏜 탄환을 맞았다.[49] 이순신은 눈을 감으며 "전투가 한창 급하니 부디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50]고 말하고는 운명하였다. 위 본문의 '시석(矢石)을 무릅쓰고'와 '탄환을 맞다'는 내용은 『징비록』에도 나온다.[51] 본문 중에서 '왈대장불의자경(曰大將不宜自輕)'과 '친출독전(親出督戰)'(11자)이 기존 기록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휘하 부장들이 이순신에게 간언하여 만류하며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설득했지만, 이순신은 끝내 듣지 않고 직접 나가 전쟁을 독려하다가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 여기서 '들을 청(聽)'자는 자형이 변형되어 난해하지만, 원문에 없는 불(不)자를 추가하여 '듣지 않다[불청: 不聽]'로 문맥에 맞게 해독하였고, 그 후 이것은 『잡저』의 '여해가 듣지 않다[여해불청:汝諧不聽]'는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위의 '비(飛)'자가 『잡저』에는 '유(流)'자로 되어 있다. 끝의 '오호(嗚呼)' 뒤에 『잡저』의 '슬프다[비부: 悲夫]'를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신이 전사한 당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 외 기록

1) 술을 제조하는 방법

『경자년 대통력』의 앞쪽 여백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술을 만드는 양주법(釀酒法) 9건과 기타 방법 1건이 적혀 있다. 이는 현존하는 유성룡이 저작한 기록에 없는 새로운 제조방법이다.

표 3 술 제조법과 기타표

술 제조법과 기타
구급주(救急酒)를 만드는 방법(急酒方)
감주(甘酒)
향기로운 탁주(香醪)
찹쌀술(粘酒)
도인주(桃仁酒)
백자인 술(栢子酒)
서청법(黍淸法)
술을 제조하는 법(造酒法)
악기를 다스리는 술을 만드는 방법(治惡酒方)
술에서 깨는 방법(醒酒方)

구급주(救急酒)는 사람이 위급할 때 구급용으로 사용하는 술이고,[52] 감주(甘酒)는 백미로 만든 술로 열흘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고,[53] 향료(香醪)는 완숙한 백미와 밀가루로 빚는 탁주이고,[54] 찹쌀술[점주: 粘酒]은 백미로 만든 건병을 삶아 누룩과 함께 4개월 동안 재운 뒤

48 조경남, 『난중잡록』 3, 무술 11월 19일, 한국고전번역원, "兩軍突發 左右掩擊 矢石交下 柴火亂投 許多倭船太半延燔 賊兵殊死血戰 勢不能支 乃退入觀音浦 日已明矣".
「선묘중흥지」, 『이충무공전서』 권13, 한국고전번역원, "賊旣入港 而後無歸路 遂還兵殊死戰 諸軍方乘勝蹙之".

49 앞의 책, 11월 19일, 한국고전번역원, "舜臣親自援枹先登追殺 炮賊伏於船尾 向舜臣齊發 舜臣中丸".

50 이순신, 「행록」, 『이충무공전서』 권9, 한국고전번역원, "十九日 黎明 公方督戰 忽中飛丸 公曰 戰方急 愼勿言我死 言訖而逝".
이항복, 「고통제사이공유사」, 『백사집』 권4, 한국고전번역원, "公直前救之 親冒矢石 手自擊鼓 忽中丸而仆 臨絕 顧謂麾下曰 諱言我死 勿令驚軍" 그 외 전사기록이 『이충무공유사』, 『충민사기』, 『정만록』, 『자해필담』, 『은봉전서』 등에 나온다.

51 김종권, 1987, 『신완역 징비록』, 명문당, pp.227. "舜臣親犯矢石力戰 有飛丸中其胸 出背後 左右扶入帳中 舜臣曰 戰方急愼勿言我死 語訖而絕".

52 노승석 해독, 2022, 『경자년 대통력』, 국외소재문화재재단자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p.3. "急酒方 井花水三鉢 曲末二升 和入瓮 翌日 白米一斗 細末乾蒸 乘溫和前 曲水納瓮 和合待冷 每米五升 曲一升 相和作塊入瓮 封口置溫處 厚裹經一日 待淸用之 二日後可用".

53 앞의 책, "甘酒白米七八升 釀如常酒法 待三四日 不至辛烈 釜中沸水 將酒缸沈 則煮出之 則十日不變味".

54 앞의 책, "香醪 白米五斗 百洗浸三日 細末熟蒸 沸水七斗 和交待冷 麴末七升 眞末三升 和釀 堅封待熟 又白米十斗 百洗浸三日 全蒸熟 水八斗 麴五升 用前醅和納 待熟用之".

찐 찹쌀과 섞어 숙성한 술이고,[55] 도인주(桃仁酒)는 찹쌀과 잣, 청주로 빚은 술이고,[56] 백자인술[백자주: 栢子酒]은 측백씨로 담근 술이고,[57] 서청법(黍淸法)은 가을 보리쌀과 찰기장쌀로 술을 만드는 방법이다.[58] 조주법(造酒法)은 술의 제조방법과 금기법을 말한 것이고,[59] 치악주방(治惡酒方)은 측백씨를 사용하여 악기를 물리치는 술을 만드는 방법이고,[60] 성주방(醒酒方)은 갈근과 칡넝쿨로 술을 깨는 방법을 말했다.[61]

이상의 술 제조방법은 유성룡이 당시의 유행한 것을 인용했거나 새롭게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체로 누룩과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첨가하여 수일 내지 십여 일 동안의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드는 그 당시의 전통술들이다. 유성룡이 이처럼 다양한 양주방법을 기록한 것을 보면 섭생에 도움되는 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허준이 소개한 의학정보

유성룡은 어릴 때 서울 건천동(현 중구 인현동)에서 이순신과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다.[62] 이순신은 건천동에서 태어났고 유성룡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지만, 과거준비생으로 한양의 사학(四學)에서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강독하는데 참가하면서[63] 건천동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은 더욱 막역한 관계로 발전하여 청장년기를 지나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년에 좌의정에 오른 유성룡은 정읍현감 이순신을 전라좌수영의 좌수사로 천거하였다.[64]

전쟁 중에는 이순신에게 전법과 화공법이 담긴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서로 편지를 자주 주고받으며 전쟁의 정보를 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순신은 갑자기 유성룡의 사망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아 척자점을 쳐서 길흉을 점쳤다. 그 결과,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다[如海得船].'는 길괘와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如疑得喜].'는 길괘를 얻고[65] 유성룡의 사망소식이 헛소문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실제 이때 유성룡은 전염병에 걸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66]고 한다. 이날에 유성룡이 직접 쓴 『대통력 · 갑오』의 1594년 7월 24일자를 보면, '병을 얻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보허제)과 삼소음(參蘇飮, 감기폐렴제)을 복용하고', 7월 28일에, '인삼강활산(人蔘羌活散, 풍담번열제)을 복용하니 발한하여 열이 내렸다.'고 하였다. 이때 유성룡은 전문적인 처방약을 복용하고 병을 치료한 것이다.

---

55 앞의 책 p.4. "粘酒 白米一升 百洗作末 作乾餠三介 水一鉢 烹熟待冷 好曲碎破 以麤篩篩下 麤曲沈水篩下 取曲水一升 前烹水和合 納瓮四月後 粘米一斗 百洗浸一宿 全蒸待冷 和前酒納瓮待熟 禁生水及鐵器 時用之".

56 앞의 책, "桃仁酒 粘米五升 全蒸待冷 好曲一升 實栢一升 半爛搗合 釀五六七日 待熟 好淸酒二瓶 添注瓮中 二三日可熟 任意分諸盆 用之亦可".

57 앞의 책, "栢子酒 凡造酒時 皮栢子若干 淨洗去外皮 白可脫 搗碎盛布袋 先納瓮底 則謂之栢子酒".

58 앞의 책, "黍淸法 秋牟麥 先備乾 正置之 粘黍米一升細末 水三瓶 米三升則水一瓶烹熟 又麥麥作細末 以篩下二升 米三升麥七合 眞麵末一升 冷曲末三合 水一瓶 米三升水一瓶 浸之".

59 앞의 책, p.5. "造酒法 造酒者 先碎好曲如栗 大暴陽三日 去其薰草之氣 ○又擇瓮甚熟者 浸水三日 每朝改水 令無餘氣 釀時至極操心 則萬無一失 ○造忌染人爲孕婦月經 喪人僧人 凡此類勿近 近則味變".

60 앞의 책, "治惡酒方 酒味酸澁 且有虛瓮氣 每酒三瓶 栢子一升式洗淨 沸湯水烹之 碎向納之 味變爲好".

61 앞의 책, "醒酒方 乾葛 薰煮火薄 切嚼而呑汁後 棄之 頻頻如是 則令人不醉 ○又醉後 葛一莖濃煎如茶 服之易醒".

62 허균, 「설부」「건천동국조이래다출명인(乾川洞國朝以來多出名人)」, 『성소부부고』 24, 한국고전번역원, "余親家在乾川洞 自靑寧公主邸後 至本房橋纔三四十家 國朝以來 多出名人 … 近世柳西厓及家兄曁李德曇舜臣 元原城均爲一時 而西厓有功於中興之後 元李二將 有再造之功 到此尤盛.

63 유성룡, 「서애선생연보」권1, 『서애집』, 한국고전번역원, "三十三年甲寅 先生十三歲 詣東學講中庸大學".

64 앞의 책, "薦刑曹正郎權慄爲義州牧使 井邑縣監李舜臣爲全羅左道水使 [時倭聲日急 上命備邊司各薦才堪將帥者 先生以慄 舜臣應旨]".

65 노승석, 2021, 『신완역 난중일기 교주본』(여해), 갑오 7월 13일, p.182.

66 정경운, 『고대일록』 권2, 갑오 7월 15일, 한국고전번역원, "七月十五日辛卯, 領相柳成龍患癘絕而復甦".

이순신은 전란 중에 해안과 바다에서 과다한 업무로 몸살과 위장병, 복통, 토사곽란, 설사, 위경련 질환을 자주 앓았다. 계사년 6월 18일자를 보면 '이른 아침에 몸이 무척 불편하여 온백원(溫白元) 4알을 먹었다. 잠시 후 시원하게 설사를 하고 나니 몸이 조금 편안해진 듯하다.' 고 하였다. 온백원은『동의보감』에 보면, '적취(積聚) · 징벽(癥癖) · 황달, 9종의 심통, 오래된 학질과 72종의 풍과 일체 복부의 여러 질환을 치료한다'[67]고 하였다.

유성룡과 이순신은 매번 아플 때마다 전문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그동안 누구에게서 의학정보를 얻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경자년 대통력』의 6월 7일자에 실제『동의보감』저자인 허준(許浚, 1539~1615)이 유성룡에게 약품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68] 말로만 전해진 이야기가 실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순신과 그 당시 사람들도 임상 중이던 허준에게서 의학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3월 23일 유성룡은 변비를 앓는 어머니에게 익기탕(益氣湯)과 인삼차(人蔘茶), 통유탕(通幽湯)을 달여 올렸다.[69] 통유탕은『동의보감』에 나오는데, '유문(幽門, 위와 십이지장 사이)이 불통하고 대변보기 어려울 때 윤택하게 해준다'[70]고 하였다. 유성룡은 어머니의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사용하였다. 침구법에도 능통하여 신궐(神闕, 배꼽 중앙자리)에 21장(壯) 뜸을 떴다. 이 신궐에 대해『동의보감』에 보면 '침을 놓으면 안되고 뜸을 떠서 치료해야 한다'[71]고 하였다. 유성룡이 이 신궐자리에 침을 놓지 않고 뜸을 뜬 것을 보면, 이 역시 허준에게 의학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기타

유성룡이 조창(糶倉)의 곡식을 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내용이 있고,[72] 병으로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주서(朱書)로 특별히 기록하였다.[73] 정유년(1597)에 포로가 되어 일본에 압송되었던 강항(姜沆)이 일본에서 왔다는 내용이 있고[74], 전쟁 타개책과 진계도(陣械圖)와 침수진목도(沈水眞木圖), 구갑선도(龜甲船圖)를 선조에게 올린 이덕홍(李德弘)의 아들 이강(李茳)[75]과 이점(李蔵)[76]이 왔다[77]는 내용도 있다. 그 외 한겨울 11월에 지진이 일어나고,[78] 지인들과 집안사람들이 오고간 내용이 보인다. 이 모두 그 당시 유성룡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다.

Ⅳ. 결론

이상으로 유성룡이 작성한『경자년 대통력』의 서

67 허준, 1989,「잡병편」,『원본동의보감』권6, 남산당, p.493. "治積聚 癥癖 黃疸 鼓脹 十種水氣 八種痞塞 五種淋疾 九種心痛, 遠年瘧疾及療七十二種風 三十六種尸疰 癲狂 邪祟 一切腹中諸疾. 川烏炮100g 巴豆霜 赤茯苓 皂莢灸 厚朴 人蔘各20g 爲末 煉蜜和 丸梧子大 薑湯下3丸或5丸 至7丸(局方)".

68 노승석 해독, 2022,『경자년 대통력』6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소장, p.17. "許浚介藥品唐扇□□".

69 앞의 책, 3월 23일, p.12. "進通幽湯 曉進益氣湯".

70 허준, 1989,「내경편」,『동의보감』권4, 남산당, p.195. "治幽門不通 大便難 宜以辛潤之 升麻 桃仁泥 當歸身 生地黃 熟地黃 炙甘草 紅花 剉作一貼 水煎去滓 調檳榔細末2g 服(東垣)".

71 앞의 책,「침구편」,「任脈流注及孔穴」, p.775. "神闕一穴, 一名氣合. 在臍中央 禁不可鍼,可灸百壯(銅人).○禁鍼 若刺之 使人臍中惡瘍潰屎出刺死(資生)."

72 노승석 해독, 2022,『경자년 대통력』4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소장, p.14. "糶倉租六石救飢".

73 앞의 책, 6월, 1일, p.17. "以病未得參祀 當大雨"(주서).

74 앞의 책, 6월 5일, p.17. "晴 淸風飄然 見府使告目 姜沆自日本來云".

75 이강(李茳)은 이덕홍(李德弘)의 셋째 아들로 인조반정 때 참수되었다.

76 이점(李蔵 1579~1627)은 이덕홍의 다섯째 아들로, 자는 사성(師聖), 호는 천유자(天遊子)이다.

77 앞의 책, 9월 12일, p.23. "李茳李蔵來".

78 앞의 책, 11월 11일, p.27. "夜中地震 自西向東".

지 사항과 비망기록의 해독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책력을 보면, 유성룡의 성명이 적혀 있지 않으나 여백에 적힌 비망기록의 문체와 필체가 현존하는 8종의 『대통력』과 일치하고, 『서애집연보』의 주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력을 유성룡의 수택본으로 판단하였다.

이 책의 여백에 적힌 203일 간의 내용은 대부분 현존하는 기록에 없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 그 당시 유성룡의 생활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각 날짜별 비망기록에는 날씨와 하루 일과, 유성룡과 관계된 여러 인물이 왕래한 내용, 병증과 한약 처방 등이 적혀 있다. 특히 표지에 적힌 83자의 이순신의 전사 기록은 이순신의 전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순신이 1598년 11월 19일 전사한 이후 1년여 기간이 지난 뒤에 1600년도 『경자년 대통력』 표지에 유성룡이 이순신의 전사 상황을 적은 것은 1599년에 선조의 전교를 받아 이순신의 공적을 현창하려는 조정의 여론에 부응하여 오랫동안 그의 전공을 되새기기 위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표지의 기록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순신이 고금도에 주둔했을 때 유성룡의 파직소식을 듣고 탄식하고 왜교성전투 이후 해상을 지키는 이순신은 배 안에 있을 때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청렴을 다짐하며 남다른 각오를 한 것이다. 둘째, 노량해전에서 휘하 부장들이 간언하여 만류하며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설득했지만, 이순신은 끝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나가 전쟁을 독려하다가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한 것이다. 이는 오직 결사적인 각오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의미로 작성되어 전사설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세간에 소개되지 않은 술을 만드는 양주법(釀酒法) 9건과 기타 방법 1건이 적혀 있는데, 이는 유성룡이 당시 유행한 양주법을 적었거나 새롭게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제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첨가하여 수일 내지 십여 일 동안의 힘든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드는 전통술들이다. 유성룡이 이처럼 다양한 양주방법을 기록한 것을 보면 섭생에 도움되는 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유성룡이 질병을 치료할 때 전문의약품을 복용했는데, 이때 허준이 약품을 소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외 관아의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집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주서(朱書)로 표기하였다. 1597년에 일본에 압송되었던 강항(姜沆)이 1600년 6월 5일 일본에서 왔다는 내용이 있고, 전쟁 타개책과 귀갑선도를 선조에게 올린 이덕홍의 아들들이 왔다는 내용도 있다.

요컨대 『경자년 대통력』의 비망기록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유성룡과 관계된 인물 연구는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실증적으로 고증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순신의 전사기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79] 항간에 잘못 알려진 자살설을 바로잡고, 허준이 의학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힌 점은 이번 연구의 큰 성과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조선 선조 때의 유성룡과 관계된 역사와 인물을 연구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79 표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수(酌水)”, “친당시석(親當矢石)”, “간지(諫止)”, “왈대장불의자경(曰大將不宜自輕)”①, “불청(不聽)”, “친출독전(親出督戰)”②, “위비환소중이사(爲飛丸所中而死)” 등은 이순신의 전사와 관련된 구절들인데, 특히 ①, ②는 『잡저』 별기에 없는 새로운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자료

- 곡응태(谷應泰),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
- 『역법전(曆法典)』.
- 유성룡, 『경자년 대통력』, 국립고궁박물관.
- 유성룡, 『대통력 · 정유』,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성룡, 『대통력 · 무술』,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성룡, 『징비록』, 국립중앙도서관.
- 유성룡, 『서애집』, 국립중앙도서관.
- 안방준, 『은봉전서』, 국립중앙도서관.
- 이순신, 『이충무공전서』, 국립중앙도서관.
- 임요유(林堯俞), 『예부지고(禮部志稿)』.

단행본

- 노승석 해독본, 2022, 『경자년 대통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노승석, 2014, 『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 노승석, 2021, 『신완역 난중일기 교주본』, 도서출판 여해.
- 경민문화사, 2016, 『서애선생문집』.
- 민족문화추진회, 1977, 『서애집(西厓集)』.
- 민족문화추진회, 솔출판사, 1997, 『서애집(西厓集)』(국역).
- 「역법총부회고(曆法總部匯考)」 41.
- 서울아세아문화사, 1990, 『고려사』 42.
- 이재호, 2001, 『국역 서애전서(西厓全書)』, 『징비록』, 서애선생기념사업회.
- 이재호, 2001, 『국역 서애전서(西厓全書)』, 『잡저』, 서애선생기념사업회.
- 이형석, 1974, 『임진전란사』 상 · 중 · 하, 한국자치신문사.
- 이은상, 1960, 『국역주해 이충무공전서』, (사)충무공기념사업회.
- 장정옥(張廷玉), 1991, 『명사(明史)』, 중화서국.

사전류

- 權丙勳, 1983, 『六書尋源』, 경인문화사.
- 江守賢治, 2007, 『草書檢索字典』, 三省堂.
- 金星元, 1983, 『五體字類』, 明文堂.
- 圓道祐之, 1979, 『草書字典』, 강당사.
- 劉少英, 1998, 『草書異部同形大字典』, 北京圖書館出版社.
- 張自烈, 1996, 『正字通』,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 赤井淸美, 1992, 『行草大字典』, 교육출판사.

참고문헌

논문

- 류을하, 2021, 「임진왜란 기간 류성룡 · 이순신의 관계와 정유년 위기의 극복」, 『서애학회』.
- 박권수, 2013, 「조선의 역서간행과 로컬사이언스」, 『한국과학사학회지』, 한국과학사학회.
- 성주덕 편저 · 이면우 등 역주, 2003, 『서운관지』, 소명출판사.
- 이은성, 1985,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 이은희 · 한영호 · 강민정, 2018, 「아랍에서 조선까지 이슬람역법의 전래와 수용」, 『한국과학사학회지』, 한국과학사학회.
- 정성희, 2007, 「조선시대 양반가문 소장 역서류의 현황과 가치」, 『사학연구 86호』, 한국사학회.

사이트

-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검색일 2022.12.1~10)
- 국가문화유산포탈 https://www.heritage.go.kr(검색일 2022.12.1~1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6 No. 2, June 2023, pp.12~26.*
Copyright©202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3.56.2.12

<New material> A Historical Study on the Memorandum Record of 『Gyeongja(庚子)·Daetongryeok(大統曆)』

RO Seungsuk Chairman of the Academic Committee, Yeohae(汝諧) Research Institute, Dongguk University's

skku1001@naver.com

Abstract

Recently, 『Gyeongja(庚子)/Daetongryeok(大統曆)』(1600), a memorandum record of Yu Seong-ryong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宣祖) of the Joseon Dynasty, was returned to Korea from Japan, and about 4,000 letters in cursive characters have been interpreted by Ro Seung-suk. The contents for 203 days written in the margin of 『Gyeongja(庚子)/Daetongryeok(大統曆)』 are mostly new, and are meaningful in understanding Yu's life and social association circumstances. There are daily routines of each day, contemporary figures, diseases and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s. In particular, the combat record of Admiral Yi Sun-shin in 83 letters on the cover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ose days.

It seems that the reason for writing the combat situations a year and a few months after Admiral Yi died in war was to honor his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for a long time by King Seonjo's order according to the public opinion of the royal court. The record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First, Admiral Yi sighed when he heard about Yu's dismissal from the office in Gogeumdo, and was always alert with clear water on the boat after the Battle of Waekyo Castle. Second, he was killed by bullets shot by the enemy while directly encouraging battle, not listening to his men who tried to dissuade him from leading the naval battle at Noryang. This only contained contents of devoting his life desperately, which is an important proof of the theory of his death in war.

It also contains nine methods for making liquor and another method that wasn't known to the public, and seems to include popular alcohol brewing methods or newly devised ones. In addition, there is a detail that Heo Jun, the author of 『Donguibogam』, introduced medicine to Yu, along with being unable to attend ancestral rites and relieving the poor written in red. There are also stories about Kang Hang(姜沆) returning to Korea after being captured by Japan and Lee Deok-hong(李德弘)'s son, who introduced Gugapseondo(龜甲船圖, the first picture of the Turtle Ship in Korea) to King Seonjo.

In the light of the above, 『Gyeongja(庚子)/Daetongryeok(大統曆)』 is an important historical record to empirically research not only figures related to Yu but also the circumstances of those days since it contains new facts that are not in the existing literature. In particular, the big accomplishment of this study is to correct the mistakenly known theory of Admiral Yi's suicide and to find out the new fact that Heo Jun provided medical information. In this respect, this book is expected to serve as a testament to the future study of the history and characters related to Yu in the mid-Joseon period.

Keywords Yu, Seong-ryong, Gyeongja/Daetongryeok, memorandum record, record of Admiral Yi Sun-shin's death at war, Heo Jun

Received 2022. 12. 16. | **Revised** 2023. 1. 13. | **Accepted** 2023. 5. 19.

CC BY NC ND